

# 아버지의 아동발달의 이해 및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 정 환†

(†서울신학대학교)

##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growing of child and activity of bringing up in father

- by comparing mother's -

Jung-Hwan Hyu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Received Agust 13, 2004 / Accepted November 24)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tudy how the understanding of growing of child to be related with recognizing the role of parents and activity of bringing up, and at the same time verifying a part of father through reviewing difference view with mother's. Object of investigation were 396 members of parents who have babies in infancy (177 members of fathers and 219 members of mothers. ).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father has stronger confidence than mother in the role of parents relatively, but he does not understand as much as mother does in growing of child, and is not active enough in bringing up, keeps less intimate relationship with his child and does not affect on his child than mother does. And father who has more understanding on growing of child has also more positive activity in bringing up child. We can get one conclusion from this research, now a days it is seriously required for a father to participate more corporately in bringing up his child, we should do support more effort to let father gets better and right understanding in growing of child and building-up more effective and positive relation with his child.

**Key Words:** *the understanding of growing of child, recognizing the role of parents, activity of bringing up, father.*

### I. 서 론

인간은 출생 직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다양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유능하고 적극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Portma nn(1951)이 말

한 것처럼 다른 포유동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아의 생명은 부모의 양육능력에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심신이 성숙한 한 인간으로 자립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 Corresponding author : 032-340-9351, jhhyun@stu.ac.kr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아동발달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동발달의 문제를 부모와의 관련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다른 어떤 발달연구보다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부모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또한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발달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아동발달에 있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부모역할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심리학적 연구는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이 현실이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모자관계의 연구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어머니보다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아동발달에 있어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 바탕에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소홀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에 관한 연구로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자료는 Lamb(1976)에 의해 저술된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이다. 그는 모자관계에 편중되었던 종래의 연구동향을 비판하면서 아버지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아버지 연구를 정리하면서 아동의 사회화내지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기능이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그 이후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 이후 Lamb등에 의한 연구는 정력적으로 추진되면서 5년 후인 1981년에 동일한 타이틀로 저서가 출판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버지에 관한 저서(Lamb, 1986, 1995, 2004)가 발간되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아동의 성역할이나 지적능력, 그리고 도덕성의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아동발달에 있어

서 단지 아버지의 존재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나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아버지 연구에 관하여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사실 1960~70년대 경제 성장기의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경제적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임무였고, 바람직한 아버지상에 대한 인식이나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세대의 아버지인 50대 이전의 아버지들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아버지 역할에 있어 다정한 아버지, 친구가 되어주는 아버지상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한경혜, 1995; 안병철, 1990). 또한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이제까지 가정에만 거의 머물렀던 여성들은 산업화로 인한 취업기회의 증대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취업을 하거나 자기실현을 위해 사회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이전보다 기대되었던 것이다(오영화·엄정애, 1997; 위영희, 1983).

이런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아버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앞에서 언급한 Lamb(1976, 1986)의 문헌을 비롯하여 많은 저서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아버지의 역할 및 양육참여에 관한 문헌적,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100여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연구의 주된 경향은 아버지의 존재유무, 아버지의 역할수행, 양육행동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관련변수로는 아동의 자아개념, 정서, 도덕성, 성역할에 발달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었다(남상문 1997; 박민숙, 1996; 박성혜, 1992; 한혜자, 1991). 그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서 소자화 현상이나 핵가족제도의 보편화, 소원해진 이웃관계 등의 사회적 변

화의 가속화에 따라 아버지 역할의 증대와 그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면서 부모나 아버지의 사회화 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안지영, 2000), 유아-아버지간 애착형성과의 관계(양미경·조복희, 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연구(강란혜, 2000) 등 아버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밖에 국제비교연구로는 미국과의 비교연구(유가호, 1995; 이영환, 2002), 일본과의 비교연구(강란혜·相良順子, 1998) 등이 있으며, 이제까지 연구와는 다르게 생산적인 아버지 역할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이영환, 이진숙, 조복희, 1999)도 발견할 수 있다.

아버지와 관련된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연구를 정리하여보면 「아버지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아버지 역할이 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버지 역할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그리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척도개발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아버지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아버지의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사실 자녀양육에 있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버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나 신념의 정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감, 그리고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부모역할의 인식과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과의 관련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부모의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버지의 아동발

달에 대한 이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양육행동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버지와 차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양육행동은 어머니와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양육행동과의 사이에 관련성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조사 시기

본 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살고 있으며, 현재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자녀<sup>1)</sup>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58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396명의 부모(아버지 177명, 어머니 219명)가 반응을 보였다(회수율 68.3%).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6.1세(표준편차 4.12)이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3.9세(표준편차 3.85)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 시기는 2003년 9~11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방법은 상기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6군데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들에게 각 반의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본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 2. 조사내용 및 평가척도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조사자의 일반적인 사항: 본인의 연령, 국

1) 본 조사는 만 4~6세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이들의 평균연령은 4.95세이다.

적, 종교, 자녀수와 연령, 학력, 거주형태, 취업 형태, 근무시간, 조부모와의 동거유무.

2)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4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①부모역할에 대한 평가(질문: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②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질문: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

③자녀와 친밀성의 정도(질문: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④자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질문: 자녀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①, ②항목에 대해서는 6단계<sup>2)</sup>로 평정하였으며, ③, ④항목에 대해서는 3단계<sup>3)</sup>로 평정하였다.

3)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이에 대한 평가척도는 <표1>과 같이 8개의 질문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평정방법은 각 질문항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정도를 6단계<sup>4)</sup>로 평정하였다.

4) 양육행동에 대한 조사: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평가척도는 <표2>와 같이 8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평정방법은 각 항목에 대한 피조사자의 해당 정도에 따라 6단계<sup>5)</sup>로 평정하였다.

### 3. 자료 분석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연구문제에 맞게 분석하게 위하여 SPSS 10.0 for Window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

2)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굳이 말하면 해당 된다-대체로 해당 된다-많이 해당 된다-상당히 많이 해당 된다.

3) 자녀와의 친밀도와 영향력에 대한 자기평가는 ①, ②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3단계(예- 어느 정도- 아니오)로 평정하였다.

4) 상당히 반대- 대체로 반대- 굳이 말하면 반대- 굳이 말하면 찬성- 대체로 찬성- 상당히 찬성.

5)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굳이 말하면 해당 된다- 대체로 해당 된다- 많이 해당 된다- 상당히 많이 해당 된다.

Pearson상관계수를 구하였다.

#### <표1> 아동발달의 이해에 대한 평가척도<sup>1)</sup>

1. 모든 아이들은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해나간다.
2. 아이는 어른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행동을 배워나간다.
3. 아이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으며 변한다.
4. 아이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있다.
5. 아이의 발달과정은 아이들마다 각각 다르다.
6. 환경은 아이의 발달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
7. 가족, 직장, 친구와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성장에 있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8. 아이에게 긍정적 자아 존중감의 형성은 아이의 발달에 있어 중요하다.

#### <표2> 양육행동에 대한 평가척도<sup>1)</sup>

1. 아이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시키고 있다.
2. 자녀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실례를 범하거나 폐를 끼치게 되면 그에 대한 잘못을 느끼도록 한다.
3. 아이가 놀 때에는 귀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놀기를 원한다.
4. 자녀가 어른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른의 말에 순종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5. 자녀에게 매우 엄하게 화를 내기도 한다.
6. 자녀가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매를 든다.
7. 자녀에게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고 가족의 명예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
8. 자녀에게 예의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피조사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 앞서 피조사자들의 특성에 대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조사 당시 유아기의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국적은 98.2%가 한국인이며, 나머지 2명은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인이다.

<표3> 아동발달의 이해에 대한 t검정

질문항목	1	2	3	4	5	6	7	8
어머니	4.08 (.144)	5.18 (.91)	5.30 (.71)	5.42 (.83)	5.28 (.87)	5.41 (.74)	5.08 (.90)	5.39 (.83)
아버지	3.67 (.145)	5.04 (1.03)	5.07 (.95)	5.19 (1.05)	5.05 (.83)	5.13 (.91)	4.86 (.97)	5.13 (.82)
t치	2.74**	1.34	2.78**	2.44*	2.64**	3.38**	2.23*	3.08**

주) 수치는 평균(표준편차)을 나타냄. \* p<.05, \*\* p<.01

종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개신교가 전체 피조사자의 39.4%를 나타내었고, 나머지는 불교 11.8%, 가톨릭 4.8%, 무교 30.6% 등으로 무응답자를 제외하면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쳐서 약 반수가 기독교인이었다.

거주 형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4.25%의 가정이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전체적인 경제적 수준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부모의 최종 학력에 대한 분석을 보면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45.2%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버지의 경우 64.8%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어머니에 비해서 아버지의 학력이 높다는 전통적인 사실을 재확인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경우도 대학이상의 과정을 마친 비율이 전체 어머니의 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최근 우리사회의 여성의 고학력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의 유무 및 직업 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경우 거의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미취업의 비율이 53.9%로 나타났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 근무 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아버지는 평균 53.24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일제 근무제도 점차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근무시간이 50시간이 넘

는 것으로 보아 장시간 근무를 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한 가정의 자녀수가 1.82명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02년의 통계청 발표가 발표한 1.17명이라고 하는 수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본 조사에서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조부모와의 동거유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 보면 시부모와 친정부모와의 동거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남편 쪽의 부모와의 동거가 일반적이었던 전통적 가정 형태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3세대의 확대가족의 비율이 2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가정의 형태가 점점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의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상기의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아동발달의 이해나 양육행동 등의 종속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단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독립변인으로 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 아동발달의 이해에 대한 분석

아동발달의 이해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가척도에 제시된 각 질문항목에 대해 6단계로 평정한 것을 점수화<sup>6)</sup>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평균5.15, 표준편차.46)가 아버지(평균4.88, 표준편차.54)보다 아동발달의 이해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5.18, p<.001$ ). 이번에는 각 질문 항목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는 어른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행동을 배워나간다.」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어머니의 평정점수가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확히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실제로 자녀양육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내지 상담을 하는 기회나 자신의 양육에 따른 아동의 행동변화를 경험하는 등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부모역할의 인식에 대한 분석

부모역할의 인식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평가」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6단계로 평정한 것을 점수화<sup>7)</sup>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로서 역할에 평가에 있어서는 어머니(평균3.66, 표준편차1.20)와 아버지(평균3.60, 표준편차1.34)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t=-2.69, p<.01$ ), 아버지(평균3.73, 표준편차1.10)가 어머니(평균3.73, 표준편차1.17)보다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와 친밀성의 정도」와 「자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서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3단계로 평정한 것을 점수화<sup>8)</sup>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녀와 친밀감의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t=-4.63, p<.001$ ), 어머니(평균1.04, 표준편차.25)가 아버지(평균1.19, 표준편차.65)보다 자녀와의 친밀감의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자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분석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t=-5.12, p<.001$ ), 어머니(평균1.12, 표준편차.58)가 아버지(평균1.28, 표준편차.53)보다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아버지는 자녀와의 친밀도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 어머니에 비해 낮지만,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녀와의 친밀도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등, 육아불안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양육행동에 대한 분석

양육행동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가척도의 각 질문항목에 대해 6단계로 평정한 것을 점수화<sup>9)</sup>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t=2.31, p<.05$ ), 어머니(평균4.52, 표준편차.63)가 아버지(평균4.36,

6) 상당히 반대-1, 대체로 반대-2, 굳이 말하면 반대-3, 굳이 말하면 찬성-4, 대체로 찬성-5, 상당히 찬성-6.

7)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1점,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2점, 굳이 말하면 해당 된다-3점, 대체로 해당 된다-4점, 많이 해당 된다-5점, 상당히 많이 해당 된다 -6점.

8) 예-1점, 어느 정도-2점, 아니오-3점.

9)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1,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2, 굳이 말하면 해당 된다-3, 대체로 해당 된다-4, 많이 해당된다-5, 상당히 많이 해당 된다-6.

표준편차.70)보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각 질문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실례를 범하거나 폐를 끼치게 되면 그에 대한 잘못을 느끼도록 한다」, 「아이가 놀 때에는 귀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놀기를 원하다」, 「자녀에게 매우 엄하게 화를 내기도 한다」, 「자녀에게 예의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준다」의 항목에서는 어머니의 평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대체적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녀에게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고 가족의 명예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의 항목에서는 아버지의 평정점수가 어머니보다 높은 것으로 볼 때,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양육에 있어 가족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5. 아동발달의 이해와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

아동발달의 이해와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아동 발달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하 CD-L집단)과 높은 집단(이하

CD-H집단)으로 분류하여 이 두 집단의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분류기준은 아동발달의 이해에 대한 평정점수가 4.88이하의 CD-L집단으로, 5.00이상은 CD-H집단으로 나누었다. 전자에 해당하는 부모의 수는 164명이며, 이들의 평정점수 폭과 평균은 3.13~4.88과 4.53(표준편차.33)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자에 해당되는 부모의 수는 236명이며, 이들의 평정점수 폭과 평균은 5.00~6.00과 5.36(표준편차.29)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자녀가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때를 든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CD-H집단이 CD-L집단에 비해 자녀양육행동의 적극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발달의 이해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성내지 개입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 두 변인의 밀접한 관련성은 이들의 평정점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두 변인의 평정점수에 대하여 Pearson상관계수를 구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r=.47, p<.01$ ). 이 결과는 아동발달의 이해의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실제 보육장면에서도 양육행동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말해 주기 때문에 부모의 올바른 아동발달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4> 양육행동에 있어서의 집단별 차이에 대한 t검정

질문 항목	부모의 차이		t치	집단의 차이		t치
	어머니	아버지		CD-L집단	CD-H집단	
1	4.30(1.12)	4.19(1.11)	0.94	3.99(1.11)	4.40(1.13)	-3.56***
2	5.17(.85)	4.96(1.01)	2.19*	4.74(.94)	5.33(.84)	-6.50***
3	4.86(1.22)	4.45(1.32)	3.18**	4.30(1.21)	4.94(1.25)	-5.10***
4	4.53(1.22)	4.52(1.17)	-0.07	4.15(1.18)	4.77(1.16)	-5.28***
5	4.60(1.11)	4.23(1.26)	3.07**	4.05(1.17)	4.68(1.17)	-5.27***
6	4.12(1.45)	3.93(1.49)	1.28	3.90(1.31)	4.14(1.58)	-1.58
7	3.50(1.38)	3.78(1.35)	-1.93*	3.41(1.20)	3.76(1.48)	-2.49*
8	5.05(.93)	4.81(1.09)	2.38*	4.49(1.16)	5.19(.89)	-6.83***

주) 수치는 평균(표준편차)을 나타냄. \*  $p<.05$ , \*\*  $p<.01$

#### IV. 결 론

본 논문은 아동발달의 관점에서 본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나 아버지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등을 중심으로 한 이제까지의 연구와는 다르게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부모역할의 인식, 그리고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아동양육과 관련된 아버지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겠다.

첫째,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지만,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양육행위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동시에 자녀와의 친밀도나 영향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접촉시간이 짧아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불안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기회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와의 친밀감이나 양육행동의 적극성은 어머니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물론 아버지의 경우 매일 직장에 얽매어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양육행동이나 자녀와의 친밀감의 형성 등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과 달리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걸맞은 아버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오늘날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의 육아의 공동참여라고 하는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발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녀와의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되고 영향력이 있는 관계설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어머니의 경우는 아버지에 비해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도 및 양육행동의 적극성의 정도가

높고, 자녀와의 친밀도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아버지에 비해 자녀와의 접촉시간이 많은 어머니로서는 일상생활에서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이나 갈등, 불안 등을 그 만큼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소자화(少子化)시대의 가속화와 소원해진 이웃관계 등, 육아와 관련된 보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육아상당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이전만큼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의 육아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금후 보육과 관련된 이런 사회적 현상의 변화와 함께 발생하는 어머니들의 육아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양육행동의 적극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육아에 대해 나름대로의 틀을 갖게 되고, 이 틀 안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내지 개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결과는 앞으로 부모들이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내지 아동관을 갖도록 부모교육이나 정보제공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와 부모역할의 인식, 그리고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의 관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명백히 밝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연구의 한계를 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양육행동에 관하여 부모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수집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즉 본 연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이나 관찰, 실험 등의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인 방법보다는 단지 설문조사방법에 의한 자료 분석에 의존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나타난 아버지의 아동이해 및 역할인식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아버지의 역할개념이나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확히 하면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정을 위해서는 설문조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면접내지 자연장면에서 관찰 등을 실시하거나 각 피조사자들의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머니나 자녀들 통해 아버지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보다 다각적인 방법에 대한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역할수행은 직접적인 측면보다는 어머니를 통한 2차적인 영향, 즉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는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아버지 역할수행의 다양한 효과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시스템은 가족구성원들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발전,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아동발달에 있어 모자관계의 절대적 중요성이 하나의 진리처럼 이해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존재와 그 의미를 이런 측면에서 되새겨보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강란혜 · 相良順子,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성 역할 태도와 양육참여행동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pp.137~150, 1998.

남상문,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박민숙, 아버지의 대화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박성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안병철, 한국남성의 가족역할: 관련요인 및 참여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논총 9, pp.231~251, 1990.

안지영, 2-3세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0.

오영희 · 엄정애, 부모와 자녀. 서울 : 동현출판사, 1997.

위영희, 아버지-아동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아버지 역할 및 아버지-아동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2), pp.23~31, 1983.

유가효,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 방식의 비교 문화적 고찰과 방향모색. 세계화를 위한“효”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방향 모색, 한국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65~88, 1995.

이영환 · 이진숙 · 조복희,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 척도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3), pp.79~90, 1999.

이희영 · 안상태 · 최태진,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유형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5(2), pp.193~205, 2003.

조복희 · 이진숙 · 이홍숙 · 권희경,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pp.123~133, 1999.

한경혜,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 가정복지세미나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서울특별시 · 한국가족학연구회, 1995.

한혜자,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 Griswold, R. L. fatherhood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93.
- Hochschild, A. R. Understanding the future of fatherhood: The “daddyhierarchy” and beyond. In M. C. P. van Dongen, G. A. B. Frinking, & M. J. G. Jacobs (Eds.), *Changing fatherhood: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Amsterdam: Thesis. pp.219~230, 1995.
- Mosely, J., & Thonson, E. Fathering behavior and child outcomes: The role of race and poverty. In W. Marsiglio (Ed.), *Fatherhood: Contemporary theory, research, and social policy* (pp.148~165). Thousand Oaks, CA: Sage. 1995.
- Lamb, M. E.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76.
- Lamb, M. E.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Rev. ed., pp.1~70). New York: Wiley. 1981.
- Lamb, M. E. (Ed.).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ew York: Wiley. 1986.
- Lamb, M. E. (Ed.). *The father’s role: Cross-cultural perspectives*. Hillsdale, NJ: Erlbaum. 1987.
- Lamb, M. E.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95.
- Lamb, M. E.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2004.
- Levine, J. A., & Pitt, E. *New expectations: Community strategies for responsible father-hood*. New York: Families and Work Institute. 1995.
- Portmann, A. *Biologische Fragmente zu einer Lehre vom Menschen*, Verlag Benno Schwabe & Co. 1951.